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국토부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캐드나마스페셜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4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혜>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종은 날	10 좋은아침
10 40 다섯남자의 어머니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40 뉴스와이드	00 러브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포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월화드라마 <상어>(재)	00 브리브 멋진 인생	00 SBS여름캠프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부모혁명)
12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 뉴스 20 TV속의 TV	00 SBS12뉴스 30 KBC열린토론회(재)
1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갈라선 (아이리스)(재)		20 MBC 네트워크 특선 (최후의 유목민)	30 피우자 만들레
2 10 토틀링평(재)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 아카데미	10 정전 60년 기획 세상은 지금(재)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광주)
3 20 직언직설	10 콘서트 필2(재) 50 당신이 바꾸는 세상(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5 후토스 미니미니(재)	00 MBC 3시 뉴스 10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10 우리아이기가 달라졌어요(재)
4 30 캐드나마스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원정정복	00 최강합체 미스마스터(재) 30 TV유치원	00 ㄹㄹㄹ 아이조아 30 키즈 CSI 과학수사대	00 인생 자두어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뽀뽀뽀 구조대 2 30 여름 특선다큐 <우리가 몰랐던 인도양 여행>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뉴스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세상의 모든 여행 <박용우의 블루 크로아티아 3부>	05 세네포트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웃나미 주의보)
8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02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특별기획 (구암 허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월화드라마 (상어)	00 월화특별기획 드라마 <불의 여신 정미>	00 SBS 대기획 (황금의 제국)
10	00 가요무대 55 베이스볼 매거진 이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0 공감다큐 <그 곳>	20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1 00 명랑해결단	00 KBS 뉴스라인	30 해외특별기획드라마 (초한지) 10:20 2013 바르셀로나 세계수영선수권 (여20m 다이빙 결승 등)	20 MBC 뉴스24 40 스포츠 다이아리 55 MBC야구야세 ①:55 비비킹-이우리의 TV 예술무대	00 11.10 라틴 50 SBS골프

EBS

06:00 건강향 아침	09:40 토틀링 이야기	14:05 EBS 스페이스 공감1	18:45 미앤미이 로보
06:10 한국기행 (서천)	09:55 지구를 지켜라	15:00 꼬마기사 마이크	19:00 EBS 뉴스
06:30 나의 성공비결	10:10 세계테마기행	15:10 풍광짜짜 라라	19:25 지식채널(재)
07:00 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꼬마기공 크랭클린	19:30 달려왔어요
07:15 미앤미이로봇	(온속자의 두고두고 먹는 여름밤상 -수목 깎일 병채와 영파 간장)	15:45 미야의 모험	20:20 요리비전
07:30 마이티 모험	11:20 부모	16:00 댕댕댕 유치원 1~2(재)	20:50 세계테마기행 <캐나다>
07:45 뽀뽀뽀 뽀로로	<특별 여행을 떠나자-사랑의 처방전>	16:20 캐니멀	21:30 한국기행 <참승>
08:00 댕댕댕 유치원 1~2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뽀뽀뽀 뽀로로(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인	12:10 EBS 다큐프라임	16:45 숲 친구 포피를(재)	<한국의 강>
08:35 로보카 폴리	12:10 EBS PARASITE (가신 PARASITE)	17:00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5 하늘에서 본 한반도 <두물머리를 품은 남양주>
08:50 숲 친구 포피를라	13:00 초등 1년 여름방학생활	17:10 로보카 폴리(재)	23:15 다큐1+
09:00 방귀대장 뽀뽀이	13:20 초등 2년 여름방학생활	17:25 놀이터 구조대, 뽀인(재)	<나무 위의 삶, 캣캣>
09:15 코코롱2	13:4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17:4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1~4	24:05 더버블기의 테스
09:30 캐니멀		18:30 곤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일반사회> 11:40	<강송희의 윤리와 사상>
00:50 내신 6강	<수학(상)>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1:40	<지리> 13:00	탈스런 (박복의 사회문화)
02:30 포스	<회법과 작문> 14:00	인턴렛 수능
03:20	<독서와 문법>	<독서-문법-회법-작문(A)>
04:10	<수학 I A형> 15:00	<독서-문법-회법-작문(B)>
05:00	<수학 I B형> 16:00	기술플러스 <수학II&작문&기백>
05:50	<미적분과 통계기본> 17:00	인턴렛 수능 <독해(B)>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18:00	EBS 수능완성 <국어(A)형>
07:30	<영어특강의 기본(1)> 19:00	<영어(B)형>
08:20	<Basic Grammar> 20:00	<영어(A)형>
09:10	<법과 정치> 21:00	<영어(B)형>
10:00	<동아시아사> 22:00	<올리 I>
10:50	<경제> 23:00	<적분과 통계>
11:50	<강봉균의 한국지리>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한지교육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07:30	EBS 생화영어	15:50	사이언스 드라마(미래를 보는 소년)
08:00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초등 1년 여름방학생활
08:30	주책 편지사 시험대비강좌	16:40	초등 3년 여름방학생활
09:10	중학 여름방학 특강 <수학①280제>	17:0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09:50	<영어① 독해 240제>	17:20	초등 6년 집기(수학)
10:30	중학개념 끝장내기 <세계사>	18: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11:10	중학 여름방학 특강 <수학2>	18:40	<사회>
11:50	<영어2>	19:20	꾸러기 천사들
12:30	<영어3>	20:00	나의 첫 번째 영어쓰기 노트
13:20	통용일기	20:40	초급 한국어 능력 검증 시험
13:50	키워드 실컷실	21:20	중학 여름방학 특강 <수학②280제>
14:00	직장인 개론	22:00	<영어① 독해 240제>
14:40	세계의 교육현장	22:40	중학 여름방학 특강 <수학2>(재)
15:10	생물이 생선!	23:20	<영어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9일(음 6월 22일 丙申)

子	36년생 관점에 따라서 관아라라. 48년생 자기와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60년생 합리적으로 줄여서 알뜰해야만 하느니라. 72년생 한 곳에 몰입해야 할 때다. 84년생 길경의 물결이 남달라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5, 25	午	42년생 상대방의 뜻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54년생 매끄러운 마무리가 이미지를 좌우하리라. 66년생 평온한 가운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78년생 더 이상 지지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 행운의 숫자 : 48, 78
丑	37년생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49년생 낮추어보다 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61년생 물처럼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자. 73년생 생기는 하지만 마음에는 안 든다. 85년생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4, 07	未	43년생 결과는 대동소이 할 것이니 형편에 따르는 것이 무리가 가 없다. 55년생 상당한 수익이 필요움을 더 할 것이니라. 67년생 움직이면 많은 성과가 따르리라. 79년생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겠다. 행운의 숫자 : 22, 85
寅	38년생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가 보인다. 50년생 투철한 사명감과 확실한 소신으로 임해야 한다. 62년생 깊은 의미가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느니라. 74년생 실행 방법이나 기교에까지 신경 쓰자. 행운의 숫자 : 18, 89	申	44년생 모래 위에 쌓아 놓은 성벽에 불과하다. 56년생 바탕이 튼실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으리라. 68년생 아차 하는 사이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서 있을 수다. 80년생 구관이 명관이고, 노물이 새것보다 낫겠다. 행운의 숫자 : 71, 29
卯	39년생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될 것이니 각오 해야겠다. 51년생 만인이 원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63년생 호적 수와의 만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75년생 인간관계 속에서 크게 허락하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11, 38	酉	45년생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빛을 보리라. 57년생 돈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다를 잡을 것이다. 69년생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만 성사의 길목에 들어선다. 행운의 숫자 : 14, 66
辰	40년생 느낌으로 판단하다가 실수 하리라. 52년생 잘 하면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 64년생 넉넉하게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6년생 다음 기회로 보류되면서 상당한 미련을 남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2, 57	戌	46년생 간결하며 핵심을 짚어야 할 때다. 58년생 지나치게 살판다면 상대적인 부작용을 야기한다. 70년생 실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2년생 추세에 영향하려 하지 말고 촛대를 가져라. 행운의 숫자 : 59, 43
巳	41년생 보람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53년생 진솔하게 인정했을 때 새로운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65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이 때문에 애를 먹겠다. 77년생 눈빛과 표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62, 33	亥	47년생 처음으로 보고 듣는 경이로움이 있도다. 59년생 변수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다. 71년생 치열한 적자생존의 원리를 실험하게 될 것이다. 83년생 지우치게 되면 많은 문제를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80, 6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 ☎010-9790-8237

“감시자들’ 흥행소식에 얼떨떨하죠”



김병서·조의석 감독 15년지기 환상 콤비 보여줘

“짧은 영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관객층이 다양할지 몰랐어요. 무대 인사 다니다 보니 노부부나 가족 관객이 많더라고요. 감사할 따름이죠.”

영화 ‘감시자들’이 27일 누적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현충일에 있는 제작사 ‘영화사 집’ 사무실에서 만난 조의석(37)·김병서(35) 감독은 “이렇게 흥행할지는 몰랐다”며 “얼떨떨하죠”고 했다.

두 사람은 특이하게도 이 영화를 공동 연출했다. 원작인 흥행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Eye In The Sky)’를 처음 본 사람은 김병서 감독이었고 절친한 조의석 감독에게 리메이크 아이디어를 냈다. 다른 영화를 준비하고 있던 조 감독은 함께 일하던 ‘영화사 집’이 유진 대표에게 얘기했고 이 대표가 즉시 리메이크 관권을 구입했다.

그동안 촬영감독으로 ‘위험한 관계’ ‘푸른 소금’ ‘감시표류기’ ‘호우시절’ 등 10여 편의 영화를 했던 김 감독은 직접 연출에 데뷔하고 싶어하던 참이었다. 기회를 주자는 유진 대표의 결정으로 두 사람의 공동 연출이 이뤄질 수 있었다. 시나리오를 조의석 감독이 각색했다.

두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학생층이 다양할지 몰랐어요. 무대 인사 다니다 보니 노부부나 가족 관객이 많더라고요. 감사할 따름이죠.”

“현장에서 제가 모니터를 지키고 전체를 끌고 가는 역할을 맡았지만, 김 감독이 더 깊숙이 파고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잡아줬죠. 현실과 타협하려 할 때마다 옆에서 체크질을 해주니까 더 긴장하며 좋은 컷을 뽑아낼 수 있었죠.”(조의석)

“저는 연출이 처음이지만, 형(조 감독)은 장편 연출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과 시간 안에서 빠른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죠. 제가 더 나은 것을 원하며 고집을 부려도 형이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영화가 빨리 완성될 수 있었어요.”(김병서)

두 사람은 서로 장점을 칭찬하고 본인의 단점을 꼬집으며 웃었다. “매일 매일 얘기하며 서로 토닥거리고 그날 성취가 잘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어디서 채워야 할지 의논했다”며 “촬영이 힘들었지만, 늘 외롭지 않은 느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원작은 조니 토(杜琪峰·두기봉) 감독이

제작하고 그의 작품 시나리오를 여러 편 써온 야우나이회이(游乃海·유내해) 감독이 2007년 연출했다. 감시반에 들어온 신참 여형사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 구조는 ‘감시자들’과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액션 스케일이 훨씬 더 큰 결말을 비롯해 감시 과정이 훨씬 더 섬세하고 짜임새 있게 묘사된 점이나 감시반원 캐릭터들이 생생하게 그려진 점 등은 ‘감시자들’이 원작보다 뛰어나다.

김 감독은 촬영감독 출신답게 직접 카메라를 들고 ‘핸드 헬드’ 기법으로 각종 현장을 전부 찍었다. 고정된 스태캠 촬영과 동시에 이뤄진 핸드 헬드 촬영분을 나중에 효과적으로 편집해 긴장감 넘치는 감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감시라는 행위의 은밀함을 잘 살려낸 것도 장편영화로서의 쾌감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여러 사람의 시선이 겹겹이 쫓잡던 점을 재미있게 봐주시길 같아요. 경찰이 도둑을 잡지는 못하고 쫓아야만 하는 이야기니까 자연스레 그런 설정이 됐어요. ‘제일스’(정우성 분)가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주변이 뿔러 있잖아요. 보통 영화에서 범죄자는 숨어 있고 가려져 있는데, 반대로 열린 공간에서 관조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오히려 그를 잡아야 하는 경찰 감시반은 존재를 숨기고 가려지도록 시선을 역으로 쌓아준 게 재미있지 않아요.”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언론과 평단에서도 ‘월매매드 상영영화’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 북미 최고 권위의 영화제인 토론토국제영화제 공식 부문에 한국영화로는 세 번째로 초청됐다. 원작 관권을 판 흥행회사가 ‘감시자들’의 배급 관권을 다시 사가는 일까지 있었다. /연합뉴스

“너목들’ 2년 넘게 기획... 사전 시작부터 달라”

작가·SBS측, 소설 ‘악마의 증명’ 표절 의혹 일축

SBS TV 수목극 ‘너의 목소리가 들려’(서진)’의 박해련 작가가 최근의 표절 시비와 관련해 문제가 된 추리 소설 ‘악마의 증명’과 드라마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해련 작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의 목소리가 들려’의 쌍둥이 에피소드는 공동정범(共同正犯)에 관한 법리를 드라마에서 풀어보고자 만들었던 것”이라며 “악마의 증명’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사건의 시작부터 다르다”고 전했다.

경찰사 황금까지의 지난날 ‘이 드라마 4~6회의 쌍둥이 에피소드가 지난해 11월 도진기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단편 ‘악마의 증명’과 같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SBS에 보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SBS와 제작사 측은 즉각 “표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한국추리작가협회도 2주 전 비슷한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박 작가는 KBS 2TV ‘드림하이’ 집필을 마친 후 법정문을 해보기로 결심해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법정에서 각종 재판을 방청하고 법조계 종사자들을 직접 취재해 에피소드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의 에피소드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쌍둥이’가 아닌 실제 사건인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점, 일관성 쌍둥이가 각종 추리 소설의 소재로 애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이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이 에피소드는 2011년 자문변호사와 내용을 짜 놓은 것인데, ‘악마의 증명’은 2012년 출간됐다”며 “에피소드를 짤 때 그 내용은 전혀 접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 소년 박수하(이종석 분)와 국선전담변호사 장재석(이보영)을 중심으로 그린 판타지 법정 드라마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p><b>어름 특집 상쾌한 고민 해결</b></p>	<p><b>한국 영화 발자취를 따라서</b></p>	<p><b>로마 황제의 선택, 스플리트</b></p>
<p>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KBS 2TV 밤 11시10분) = 스타와 함께 하는 여름특집. ‘안녕하세요’는 오는 8월 12일까지 총 3주에 걸쳐 여름특집으로 꾸며진다.</p> <p>29일 방송되는 1탄에는 정구 2집 타이틀곡 ‘첫 사랑니(Rum Pum Pum Pum)’로 1년 4개월 만에 컴백하는 청량음료 같은 매력의 걸그룹 f(x) 멤버 빅토리아, 크리스탈, 엠버, 쉐리, 루나 전원이 게스트로 출연한다.</p> <p>f(x)는 이날 걸그룹 특유의 밝고 명랑함으로 고민 해결에 적잖은 도움을 줬다.</p> <p>이날 방송에서는 여름특집 답게 고민 사연을 신성한 주인공을 위한 짝꿍 이벤트도 마련돼 즐거움을 선사한다.</p> <p>2탄에는 제국의 아이들 멤버 5명(시안·동준·형식·광희·준영)과 함께 김예림이 게스트로 나선다.</p>	<p>하늘에서 본 한반도(EBS TV 밤 10시45분) = ‘두물머리를 품은 남양주’편. 두물머리에서 북한강변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한국 영화제작의 메카로 불리는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나온다.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 많은 한국영화가 이곳에서 촬영됐다. 대규모 종합 촬영소는 물론 일반인들의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자료관도 운영되고 있다.</p> <p>국립수목원은 세조가 생전에 이곳을 둘러보고 능터를 정한 후, 부속림으로 지정해 보호해왔다. 일제강점기, 6·25의 혼란 속에서 거의 피해가 없어서 우리나라 식물들은 물론 동물들까지 서식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갈산, 수종사, 흥유루, 광릉, 사릉, 봉선사 등이 소개된다.</p>	<p>세상의 모든 여행(MBC TV 오후 6시20분) = 박용우의 블루 크로아티아 3부. 고대 로마제국 황제가 로마를 버리고 선택한 도시, 스플리트. 달마티아 중부, 아드리아 해 연안에 위치한 스플리트는 크로아티아 제 2의 관광도시로 로마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 황제의 지리도 차버리고 꿈같은 노후를 보냈던 궁전은 스플리트 관광의 중심지다.</p> <p>이집트에서 뽑아온 대리석 기둥과 3500년 된 스핑크스로 꾸민 궁전은 화려한 로마 건축을 잘 보여준다. 200명의 조각가 손목이 질러나간 뒤 완성된 황제의 두상부터, 군인과 신하들이 머물렀던 집을 개조해서 운영하는 민박집까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이 동시에 흐르는 곳,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을 탐험한다.</p>